

# 여호수아

## 영역자의 머리말

《여호수아 주석》은 존경받기에 충분했던 저자가 남긴 마지막 문학적 작업이었다. 그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원래도 강하지 않았던 그의 체력은 과도한 노력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으며, 거의 모든 문장은 그가 심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잠시 해방된 순간들에 대필자(Amanuensis, 아마누엔시스)<sup>1</sup>에게 구술하여 받아쓰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63년 11월 30일자 편지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거의 6개월 전, 병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모두 지쳐 연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쓰면서, 그는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 주석》을 시작했으나, 그때까지 가능한 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제3장 이상을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편지가 쓰인 지 두 달 조금이 지난 1564년 2월 6일,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설교단에 섰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 10일, 그의 지상 생애가 곧 끝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악화되어, 제네바 시 공식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며 이제는 죽음의 위협에 처한 칼빈 목사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의한다.” (*Arrete que chacun prie Dieu pour la sante de M. Calvin, qui est indispose depuis longtemps, et meme en danger de mort.*)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주석은 집필되었다. 이를 돌아보면,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보여준 불굴의 에너지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를 쉬게 하려는 사람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께서 오실 때, 나를 빈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란다는 말인가!”**라며 맞섰다고 한다.

이처럼 특별한 때와 정신 속에서 쓰인 작품은 비판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주석은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저작이다. 그 자체의 내적 가치만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

순수한 지적 성취로 보아도,

---

1. “Amanuensis”(아마누엔시스)는 라틴어 *manus*(손) + *scribere*(쓰다)에서 온 말로, 직역하면 “손으로 대신 써주는 사람”이라는 뜻

이 작품은 저자가 다른 주석에서 보여준 **탁월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더 높고 숭고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석은 그가 평생토록 열정과 성실로 가르쳐 온 교리 체계를 최종적으로 확증한 유언적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과 이전의 여러 권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출판된 **귀중한 논문**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부록에는 원편집자인 윌리엄 프링글(William Pringle) 목사의 서문, 테올루크(Tholuck) 교수의 독일어 논문, 그리고 서로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저자들의 인용문이 실려 있어, 모두 한 목소리로 **칼빈의 재능과 인격의 고결함**을 증언하고 있다. 이번 재판(再版)에서는 이전 판과 달리, 부록에 ‘추가된 증언들(Additional Testimonies)’이 새로 포함된 것이 주요한 변화이다.

현재 이 책을 마무리하는 **칼빈 저작 목록**은 그의 가장 뛰어난 전기 작가인 베를린의 앙리(Henri of Berlin)가 제공한 목록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독자로 하여금 그의 방대한 문학적 업적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H. B.

1854년 12월 30일

## 칼빈의 여호수아서에 대한 입장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는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 낫다. 제목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근거가 약하고 충분하지 않다.

사무엘의 이름이 성경의 일부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 부분에 붙어 있으며, 즉각 뒤이어 나오는 책이 사사기라고 불리는 것도, 그것을 저술한 이들이 사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호수아는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현재 책의 15장에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사건의 요약물 정리하고, 그것이 《여호수아》 책의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제사장의 직무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구두로 교훈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 선하심을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 참된 신앙을 증진하도록 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레위 지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서기관이나 공증인 계급이 있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할 가치가 있는 모든 사건을 영구 기록물로 남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꼭 알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넘어가되, 본질적인 사실, 즉 이 책에 담긴 교훈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sup>2</sup>

---

2.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를 갖는 이 실질적인 결론은, 여호수아서를 정경으로 삼는 교회의 전반적인 동의와 신구약의 다른 영감을 받은 저자들의 직접 간접적인 인용에 의한 본서에 대한 강력한 인준에 따르는 것이다. (왕상 16:34; 시 44; 시 68:12~14; 78:54, 55; 114:4, 5; 함 3:11; 행 7:45; 히 4:8; 11:30, 31; 13:5 및 약 2:25)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어쩌나 불확실한지 역사 초기부터 에스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탁월한 저작자 가운데 본서의 저자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이 중에는 특별히 비느하스,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를 손꼽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추론은 저작권 문제야말로 오직 골머리만 썩힐 뿐 결코 만족스런 해결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칼빈 자신은 "여호수아를 저자로 보는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지만 앞에 설명된 그의 견해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그럴만한(plausible)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은 그가 쓴 글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한 기록시기의 착오는 원래 작품에 약간의 추가내용이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따름이다. 그러나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에 기록된 모세의 사망 기사 때문에 모세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저자라는 주장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삽입이 여호수아를 저자로 보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저자 자신이 목격자와 기록된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말하는 여러 구절의 증거는 접어들더라도 본서를 여호수아의 저작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위치에서 강한 논리적 근거를 얻는 셈이다. 그는 신령하게 임명된 후계자였을 뿐 아니라 모세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근면한 모방자였다. 그가 모세의 통치에 대한 일반 원리에 있어서는 그를 본받았으면서도 붓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를 모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곧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수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세 만큼 세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24:26에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언급된 기록이 비단 특수한 사건 설명에 대해서만 국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비(類比; analogy)는 그가 이 때 한 일은 그의 일상적인 관례와 일치하며, 우리가 그의 사건 많은 생애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은 최소한 본질에 있어서 그의 작품이라는 추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영문 편집자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몇 차례 뚜렷한 승리를 거두었고, 살기 편리하며 비교적 비옥한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신적 언약의 성취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오히려 언약의 핵심 조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한 구석에 가두어 놓고, 그분의 사역을 형태도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 두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책(여호수아서)은, 백성의 견딜 수 없는 불경함으로 인해 구원의 과정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그 공의의 엄격함을 절제하셔서 결국 가나안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깨달음, 곧 사람은 죽음으로 단절되고 생애의 도중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세가 죽었을 때, 심각한 변화가 닥칠 것처럼 보였다. 백성은 마치 머리가 잘린 몸처럼 남겨졌고, 흠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불멸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마치 밝은 거울 속에서 보듯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장식하신 사람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그분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자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으며**, 일시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그들에게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합당한 후계자를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신다. 아니,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돌맹이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이 거의 홍해를 건넌 기억을 지워 버릴 지경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동일한 기적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단절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또한, 할레의 갱신은 백성의 불성실과 절망으로 인해 거의 잊히거나 포기되어 버린 언약의 회복과 같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음을 본다. 첫 번째 성의 함락은,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을 소망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징표가 되었다. 이는 여리고의 성벽이 단지 나팔 소리만으로 흔들려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단 한 번의 전투나 짧은 원정으로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고된 전투와 인내의 싸움을 통해 점차 소멸되어 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에 매우 큰 난관들이 놓였다는 점이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한데 모여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러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단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한꺼번에 자신들을 삼켜 버릴 듯한 거대한 연합군 전체와의 전쟁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시도들은, 다른 어떤 결과도 낳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실 때 베푸시는 자비와 신실하심이 더욱 찬란히 빛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그들의 끊임없는 승리의 행진과 비교할 데 없는 많은 전투의 성공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직접 간섭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여호수아의 단 한 번의 기도로 태양이 그 움직임을 멈춘 사건에서 드러난다.** 마치 천지만물조차 그를 돕기 위해 무장하고 준비되어 그 명령에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또한 전쟁 진행 중 일어난 지연과 난관들은 백성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는 유익한 시련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놀라운 목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는 모세가 이전에 백성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한 바 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사막과 같은 황폐지로 변하여,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은혜롭게 마련하신 섭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위해 사악하게 왜곡하였다. 즉, 그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판단한 뒤, 나태와 비겁함에 빠져 되돌아간 것이다. 이 한 가지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불러왔다. 그들은 주님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음에도, 마치 탈영병이 군사 서약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진영을 떠나는 것처럼<sup>3</sup>,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할 기간의 복무를 배신과 불순종으로 거부하였다.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제공하신 땅의 지배권도, 그들은 노골적인 배은과 불감으로 일부만 차지하며 거부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거룩한 땅을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순수하고 정당한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사악한 우상 숭배와 미신을 이전과 다름없이 행하게 두었다. 또한, 그 명령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즉 타 민족과의 혼합으로 인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에도, 그들은 마치 위험을 자초하려는 듯 우상 숭배와 미신을 재앙의 불씨를 제공하도록 방치하였다.

---

3. 여기에 대한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Car tout ainsi comme des gendarmes fuyars, qui laissent vilainement leur enseigne, oublians le serment par le quel ils se sont obligez, ils furent traitres et perjurez à Dieu, sous lequel ils estoient enrollez pour servir tout le temps par luy ordonné;” 마치 탈영병들이 자신이 맹세한 서약을 잊고 비열하게 진영을 떠나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섬기기로 등록된 그 의무를 **배신하였다.** - 영문 편집자 주.

그들의 완고한 불신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선고된 징벌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경고하지 않으셨음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즉, 그들이 사악하게<sup>4</sup> 살려 둔 민족들이 결국 가시와 독침이 되어 괴로움을 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침입과 약탈로 괴로움을 당했으며, 마침내 거의 폭력적 억압 아래 짓눌리다시피 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것은<sup>5</sup>, 결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거한 것<sup>6</sup>이라면, 백성의 성격이 어떠하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약속이 좌절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 사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백성은 약속받은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의 신실하심<sup>7</sup>은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손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창세기 15:18).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수아는 이 약속이 임박하였고 실제로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태에 굴복하여, 그 경계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좁은 범위 안에 정착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관대함에 제동을 거는 꼴이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일종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을 볼 때, 경건한 마음들은 종종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백성의 사악함에 대한 징계는 그 정도가 완화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믿음의 심히 괴롭고 위험한 시련이 되었을 일이, 오히려 강력한 신앙의 지지로 바뀌었다.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훌륭한 상태를 기대하도록 상기시켜 주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며 모든 장애물에서 자유로워져 완전한 영광으로 빛날 것임을 알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완전한 복락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4. 라틴어, “Male”, 프랑스어, “Contre leur devoir;”, 그들의 임무에 어긋나게 - 영문 편집자 주.

5. 라틴어, “Irrita caderet”, 프랑스어, “Ne tombast tout à plat sans avoir son effet”,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고 헛되이 끝난 것은 아니다 - 영문 편집자 주.

6. 프랑스어, “A esté purement et simplement fondée au bon plaisir de Dieu, et non ailleurs;”,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 이외의 다른 무엇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영문 편집자 주.

7. 라틴어, “Dei fides”, 프랑스어, “La certitude de la promesse de Dieu”,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언들이 그들을 도왔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옛 언약을 되풀이한 내용은, 시편 72편과 89편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연관되어 적용되었다. 즉, 주님께서는 약속된 땅의 완전한 실현을 그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일정 기간 미루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인 다윗에서도 나타난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의 손 안에서만 온전히 확립되고 확증됨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백성의 사악함으로 인해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교회의 상태가 올바르게 정비될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다윗이라는 인물 안에서 중재자의 형상이 나타났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맛보도록 허용<sup>8</sup>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실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임무를 맡은 지파의 지도자들이 행한 영토 분배는 결코 허황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차지하게 하신 기업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명확하게 나누어졌다.

이 점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신성한 준수가 두드러진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일부 자녀에게 특정 정착지를 지정하였다. 만약 각 지파가 단지 인간의 결정과 투표에 의해 그 몫을 받았다면, 그저 족장(야곱)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우연으로 여겨지는 제비뽑기가 그 예언을 확증했으니, 이 기업의 안정성과 확실성<sup>9</sup>은 마치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명확히 확정된 셈이었다.

따라서, 백성의 나태함으로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본래 임무가 끝난 듯이 되돌려 보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예배를 지키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형제적 연합의 기념물을 세웠을 때, 다른 지파들은 그것이 제사를 위한 제단으로 착각하고, 따라서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하고, 잘못된 예배 때문에 믿음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기보다는 친족을 먼저 공격할<sup>10</sup>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자, 쉽게 진정되어 성스러운 열정이 갑작스럽게 무장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 있는 태도로 칭찬을 받는다.

---

8. 프랑스어, "Consoler et soutenir", 위로와 힘.

9. 라틴어, "Donntion is stabilitas." 프랑스어, "La verite de la prophetie;" 예언의 진실성.

10. 라틴어, "Suos consanguineas potius delere" 프랑스어, "De plutost exterminer leur cousins, c'est á dire ces ligneesla qui estoient de leur sang;" 같은 피를 받은 친척들을 근절함.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얼마나 간절했는지<sup>11</sup>, 그리고 백성의 변덕과 배신을 막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했는지가 드러난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강력한 권면뿐만 아니라 단호한 선언까지 사용했으며, 특히 언약을 정식으로 갱신하고, 서약의 엄숙함을 더하여 이루었다<sup>12</sup>.

---

11. 라틴어, “*Quantopere sollicitus fuerit Josue de propaganda Dei gloria*” 프랑스어 “Combien Josue a ete songneux de procurer qu’apres sa mort Dieu fust glorifie”,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가가 드러난다.

12. 위의 훌륭한 요약에 덧붙여 말하자면, 여호수아서의 기간은 **요세푸스는 25년, 다른 유대인 연대기학자들은 27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단지 17년으로 줄이려 하기도 한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여호수아 1~7장) :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에 대한 연속적 서사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여호수아 13~23장) : 주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책의 나머지, 여호수아 24장) : 여호수아의 소집으로 세겜에서 열린 지파들의 대회와 그때 이루어진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 제1장

-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절. 여호와와 ... 후에<sup>13</sup> ...**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신실함을 본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sup>14</sup>되고 언약이 갱신된 권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됨을 나타내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미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직책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 은사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하고 준비가 철저한 사람일지라도, 행동해야 할 시점이 되면 주저하거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즉시 원정을 준비하라는 권면은 결코 불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도자를 따라갈 때, 백성에게 온전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sup>15</sup>.

**2절. 내 종 모세가 .....**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부담이 네게 맡겨졌다. 네가 후계자로 임명받은 자로서 그의 자리를 이어라.” 둘째, “모세가 죽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나는 첫 번째 의미를 선호한다. 이는 후계자로서 모

13. 책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접속사**(보통 영어 번역에서는 “그리고(and)” 또는 “이제(now)”로 옮겨짐)는 명백히 이 책이 이전 저작과 연결됨을 나타내며,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책의 연속으로서 성경 정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구절에서, 칼뱅의 라틴어 번역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각각 붙은 “주님의 종(servant of the Lord)”과 “모세의 종(Moses’ minister)”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칠십인 역(Septuagint)** 본문에서는 전자는 생략되어 있으나, 다양한 판본 중에는 기록되어 있다.

14. 라틴어, “*Repetitis mandatis*” 프랑스어 “*En reiterant les articles de sa com mission*”; 그의 위임 조항을 재강조함으로써.

15. 그들이 본대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가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다.

세가 남긴<sup>16</sup> 직책을 정당하게 이어야 한다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붙여진 “종”이라는 칭호는 그의 백성 통치와 업적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상황<sup>17</sup>에 맞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지도권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로써 그의 종을 인정하시되, 모세를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리에 대신 선 여호수아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백성이 단순한 명령만으로 충분히 순종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하면서, 온 땅과 그들이 밟을 디딘 모든 장소를 평화롭게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왜냐하면 불신보다 우리를 나태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하실 때, 그 신뢰가 모든 시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한다. 즉, 그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약속을 전하면서, 동시에 모세가 이전에 증언한 바를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만약 어떤 이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같은 말이 전해졌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에는 모세가 400년 후 들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sup>18</sup>고 반문할지라도, 내 대답은 이렇다.

여기서는 널리 알려지고 기념되었던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가 최근의 증인으로 등장한다. 만약 그가 죽음으로써 백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이 이를 바로 잡아 주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백성이 즉시 온 땅을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진리와 성취가 백성의 사악함으로 막힌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내가 논증(Argument)에서 설명하였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삼으심으로써 그분의 은혜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펼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의 잘못된 행위가 징계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모세가 선포한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즉, 멸망받도록 정해진 민족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들이 눈과 옆구리에 가시와 가시침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어야 했다. 하지만 약속은 결코 깨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았다. 그들

16. 라틴어, “*Ex qua decesserat Moses*” 프랑스어, “*De laquelle Moyse estoitsorti ayant fait son temps;*” 모세가 맡은 기간을 다 마치고 남겨둔 직책이나 사명.

17. 라틴어, “*Ad circumstantiam loci*” ; 프랑스어 “*A la circonstance du passage*” ; 문맥상의 상황.

18. 프랑스어 원문에서는 이를 의역(paraphrastic)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혹은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에게 전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신 영원한 언약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과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연되었음에도, 장기간 미뤄진 완전한 소유를 통해, 하나님  
이 이미 정하신 명령의 신실함이 입증되었다.

백성은 정해진 경계를 제때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때문이라도 그들은 완전히 추방당해야 했었다.<sup>19</sup>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편안  
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영토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정당한 징계로, 그들이 살려둔 나머지 민  
족이 그들에게 해로울 것이라 예고되었음에도 그들은 거짓과 거의 끊이지 않는 배신으로 하나  
님의 진노를 자극할 때를 제외하고는 괴로움을 겪지 않았다.

한 마디로 그들은 형편이 형통할 때마다 방탕으로 빠져 돌이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덕분에 원수의 횡포에 눌리고 마치 무덤으로 내던져진 것  
처럼 보일 때조차,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구원자가 나타나, 모  
든 희망과 달리 그들을 파멸에서 구원하였다.<sup>20</sup>

여기서 말하는 ‘대해’란 ‘지중해’를 뜻한다. 이곳에 반대되는 경계선은 헛(히타이트) 족속의  
땅이다. 마찬가지로 레바논은 유브라데스와 반대되는 것으로 놓여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바논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광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sup>21</sup>.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9. 프랑스어에서는 이 두 문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Le peuple poudit du premier coup, et des l'entree s'estendre jusqu'aux bornes que Dieu luin mesme auoit marquees; il n'a pas voulu; il estoit bien digne d' en estre mis dehors et du tout forclos” “백성은 처음부터, 즉 입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경계까지 땅을 넓힐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충분히 내쫓기고 완전히 차단될 만한 자격이 있었다.” 즉, 칼뱅은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정당한 징계를 강조하고 있다.

20. 라틴어 “Qui praeter spem rebus perditis succurrerent”; 프랑스어역 Quioutre toute esperance venoyent a remedier aux affaires si fort deplorezet redresser aucunement l'estat du peuple;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 하러 와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상태를 회복한 것은.

21. 여기서 칼빈의 말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광야’ 또는 ‘사막’은 레바논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대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막은 남쪽 경계를, 레바논은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연적인 경계를 크게 셋으로, 곧 북쪽의 레바논, 남쪽의 신광야, 서쪽의 지중해로 구별 할 수 있다. 동쪽 경계는 난제를 제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데스강이 여기에 대한 경계선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역사적으로 번창했던 시기까지 계산에 넣을 경우, 실제로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경계선에 대한 현격한 차이점을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 해결하려 한다. 어거스틴은 그의 여호수아 21장 주석에서 가나안의 본래 국경선 넘어 동쪽 지역은 실제 소유가 아니라 조공을 위해서 허용된 나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윗과 솔로몬의 원정은 어느 정도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다른 주석가들은 유브라데스 한 지류가 레바논과 만나는 곳을 하나로 취급해서 북쪽 경계로 보고 동쪽 경계는 불분명하게 남겨진 것으로, 아니면 요단강이 있으므로 특별히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칼빈이 그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에 더 실제적인 지혜가 있어 보인다. 곧 그는 약속된 땅의 경계의 불명확성은 그 땅의 실제 한계선과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구약 신자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당대를 넘어 새롭고 보다 더 영광스러운 섭리 아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시기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5절. 너의 평생에 ... 없으리니 ...** 수많은 호전적 적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은 늘 불확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민족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가! 약속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여기서 제거된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승리를 기억하도록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적대 세력이라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맡게 될 전쟁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명령받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연속적으로 후계자에게까지 이어주심을 나타낸다.

이어지는 내용도 같은 의미지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더욱 분명히 표현된다. 이 때문에 사도(히브리서 13:5)는 신자들을 탐욕에서 돌이키고 모든 근심과 과도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이 말씀을 적용한다. 실제로, 근심에서 비롯된 불신은 우리 안에 극심한 혼란과 동요를 일으켜, 위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겁 많음을 치유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신 현재 주신 도움에 만족할 것을 상기시키신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끈기와 용기를 갖추라는 권면이 추가되고, 실제로 반복되어 더 깊게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이 다른 말로 제시되어,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신적으로 맡겨진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장애물과 맞서면서도 중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투쟁을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노력하게 하는 힘을 주지만, 불신은 겁과 노력을 중단함으로써 드러난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권면의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늘 민첩함으로 주목받던 여호수아조차 의무 수행을 촉구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느린 행동과 나태함 속에 있을 때에는 더욱 격려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태도가 한 번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되었다. 이는 그가 수많은 전투와 다양한 싸움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강하고 무적의 용기를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두 수식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령하심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곧바로 문장을 반복하고, 부사 “매우(very)”를 더해 강조하신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 능력이 미약하고, 사탄이 거칠게 공격하며, 가장 쉬운 길은 노력을 늦추는 것<sup>22</sup>임을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결코 어려운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도나 산만한 노력으로 힘을 허비하듯, 진정한 용기와 견고함의 근원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꾸준히 지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즉,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만 진정 무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 무모한 용기로 돌진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는 데서만 힘을 갖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담대하게 싸우도록 명령하신다. 그가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안내하신다. 율법을 지침으로 삼으면 모든 일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주인으로 삼으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며, נִשְׁמָר(샤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신중함뿐 아니라 성공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무모함은 실패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율법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도움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갖게 된다. 위협에 직면해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호수아는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여 단순한 순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받는다.

**많은 사람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때로는 자신이 지나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부주의로 많은 것을 놓치거나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과 혼동하기 쉽다.** 이 때문에 율법에 담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일반적 금지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강조된다. 개인이 삶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듯,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더욱 필요하다.

---

22. 프랑스어 “Et il ne faut qu'un rien pour nous faire perdre courage;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을 당하기만 해도 낙담하고 마는 것”



만약 위대한 인물조차 겸손이라는 제동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이면서 더 큰 자유를 누리려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가! 더욱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규칙을 정하심으로 써, 명예가 높은 자도 백성 중 가장 낮은 자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게 하신다.

**8절. 이 율법책을 ...**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도 함께 명령되고 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묵상이 중단되면 많은 오류가 쉽게 스며들고 기억력이 녹슬어, 연속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사람들은 마치 무지한 초보자처럼 실무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 매일 발전하며, 생애 내내 율법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로써 이 공부를 경시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오만으로 눈이 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가? 일부 해석자는 여기서 ‘입’이 얼굴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로 쓰였다고 보지만(대유법적 표현으로),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나는 이 단어가 여호수아처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통치하에 둔 전체 백성을 위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하게 쓰였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율법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 맡은 직무에 따라 자신이 배운 것을 백성을 위해 전파하도록 명령받는다. 동시에 자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명령받는다. 많은 사람은 말로만 율법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따라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과 인격을 율법에 맞게 살도록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

구절의 두 번째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속적 목표를 이루려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 보여진다. 때로 시작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형통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성급하게 세운 계획이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오만에는 정당하게 거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학문에 대한 부지런함과 순종에 대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

구절 마지막에서,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미 언급했듯이 문장이 반복되거나 두 번째 약속이 추가된다. 나는 두 번째 약속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약속된 성공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능숙하고 규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신중함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만과 대조된다<sup>23</sup>.

23. 프랑스어 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Ainsi la prudence et sagesse que les fidèles apprennent de la parole de Dieu est opposée à l’assurance de ceux auxquels il semble bien qu’ils se gouvernent assez discrètement et sagement, quand ils besongnent selon leur propre sens.”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신중함과 지혜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충분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만과 확신과 정면으로 대조된다.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히브리어에서는 단순한 긍정문을 종종 질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법적 표현은 매우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질문이 강조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이전에 가르쳐진 내용을 확실히 증언하고, 주께서 자신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심으로써 종으로 하여금 염려와 망설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네 곁에 있으리라.” 여기서 강조점을 주목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한다<sup>24</sup>.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신뢰하고, 양심 속에서 그 확신을 충분히 느끼며 그가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때, 무엇보다 신뢰와 확신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 10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11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 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 13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 14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 15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 17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 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4. 프랑스어 “C’est bien pour certain avec grande signifiance que ceci se dit d’autant qu’il n’est pas question de résister à son commandement.”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명령하여**<sup>25</sup> …… 이 선언이 정탐꾼들이 파견된 후, 즉 그들이 돌아온 뒤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야 그가 진을 옮기기로 결심했음을 확신한다. 적지에 발을 들이기 전에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길로 성급히 나아갔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부당한 성급함일 것이다.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이후에 누락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장은 일종의 삽입된 괄호로 보아야 하며, 여호수아가 마침내 백성들에게 그릇을 모으도록 명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독자에게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든 필요 사항이 확인된 후, 그는 진군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선언을 내리며, 백성들에게 원정 준비를 명령한다. 그는 사흘이 지난 후 요단을 건널 것임을 최대한 확신에 차서 선언하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결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도 여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건널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없어 보였다<sup>26</sup>. 다리나 배를 이용할 방법도 없었고, 적이 이를 막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기대한 것은 무작정이나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신적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 백성들의 신앙도 그들의 신속한 순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직면한 엄청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민첩함을 심어 주신 것도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12절. 또 르우벤 지파와…** 요단강을 넘어 그들에게 유산이 주어졌으나, 그 조건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몰아내는 데 있어 형제들과 함께 군 복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 행동할 것, 즉 아내와 자녀, 소유물을 모두 남겨두고 요단강

25. 여기서 제시된 견해가 옳다는 점을 의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문에서는 칼빈이나 우리의 번역에서 “그 때(Then)”라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단순한 연결사 “그리고 (1)”에 불과하며, 칠십인역에서는 καὶ로 번역되어 있다. 이 연결사는 **여호수아가 장관들에게 내린 명령이, 그가 받은 은혜롭고 격려적인 메시지 이후에 주어졌음을** 나타낼 뿐, **즉시 또는 그 순간에 주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정탐꾼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2장에서 상세히 기록된 사건들이 진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성서 기자가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편리한 서술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일부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몇 가지 겉보기의 연대 착오(anachronism)를 근거로, 여호수아가 연속적인 역사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저자들의 분리되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6. 이는 다소 조건을 붙여 받아들이야 한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 그 강은 이미 정탐꾼들이 왕복하면서 건널 수 있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쫓던 자들이 택한 경로를 보면, “여울(fords)”로 불린 지점들은 범람기에도 건널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간신히 건널 수 있는 한두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대규모 집단에게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칼빈이 후에 언급한 “만약 그들이 건너야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옮겨주셔야 한다”는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을 건너며, 형제들이 평화롭게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말 것을 권면한다. 그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두 가지 논거를 사용한다. 하나는 권위에서, 다른 하나는 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모세가 내린 명령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누구도 그의 결정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자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임이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도, 그들이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계약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sup>27</sup>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그는 공정성의 동기를 들어 설득한다. 같은 유산을 나누어 받을 사람들이 형평성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말한다. “너희 형제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적어도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너희는 평화로운 정착지에서 모든 안락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부조리하다.” 그가 그들에게 “형제들보다 먼저 나아가라”고 명령할 때, 이는 적과의 전투에서 먼저 맞서 싸라는 의미가 아니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몫 이상의 부담을 지라는 뜻도 아니다. 그가 의도한 바는 민첩하게 움직이라는 권고일 뿐이며, 뒤처져 느리게 따라가는 것은 일종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간주될 수 있었다.

따라서 “형제들보다 먼저 나아가라”는 표현은 전투에서 맨 앞에 서라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며 준비된 열의를 보여주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은 네 개의 편성대로 정렬하여 동일한 순서로 전진했다. 또한 그들을 “전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약한 자는 공동체의 복지를 책임지는 집에 머물거나, 공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완전히 면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6절. 그들이 ... 대답하여 가로되 ...** 그들은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순종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힌다. 우리의 의무는 마음에서 기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충실히 다한 것이 되며, 이는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다(고린도후서 9:7). 만약 그들이 자주 반항했던 모세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하는 데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그들이 항상 열정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강했으며, 그 절제는 단지 용인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반역했는지, 그리고 신적으로 부과된 멍에를 얼마나 완고하게 벗어나려 했는지를 고려하면 최고의

---

27. 모세와 맺은 약속은 매우 명확하였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는 분명히 규정하였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전쟁에 나아갈 것”,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할 때까지”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대답하였다.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여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요단강 이쪽에서 우리의 유산을 차지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반역적인 영혼들(시편 95:8~11)이 아니라, **징계의 본보기**를 통해 억눌려 조용히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sup>28</sup>.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미덕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그가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뢰의 기반은 동시에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이다. 그들은 새 지도자 아래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것이라는 능력과 희망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확신을 느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스스로 용기를 얻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바라봄으로써 성공의 결과에 있어 그의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하나님<sup>29</sup>”이라는 표현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는 분명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표현의 형식 또한 믿음의 확신과 기도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sup>30</sup>. 따라서 그들은 마음속에 좋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일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기도에 의지한다. 이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끈기를 촉구할 때, 자신들도 그의 확신을 따라 따르고 모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여호수아가 용기의 본보기였고, 행동과 가르침으로 모두를 격려했지만, 그 자신도 다시 자극받아 자신의 민첩함이 백성을 고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28. 그들의 겸손한 대답에 대한 반론은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온 것 같다. 요컨대 본문을 직역하자면 칼빈의 라틴어 역이나 우리 영어역에 암시되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주장이 전혀 없다. 본문은 그저 그들이 모세에게 청종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또는 “모든 것에 따라서”(לְכָל: 케골) 그를 청종하겠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의 권위가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뜻이다. 칠십인 역은 이것을 Κάτα πάντα ὅσα ἠκούσαμεν Μωσῆ, ἀκούσομενθα σου 로 번역함으로써 이 의미를 살리고 있다.

29. 이 강조점이 칠십인 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곧 “ὁ Θεός σου(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ὁ Θεός ἡμῶν(우리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즉, 원문의 개인적·직접적 강조(너희 하나님)가 칠십인역에서는 포괄적·공동체적 표현(우리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원래 의미가 약화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

30. 그러나 여기 사용된 표현 방식은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믿음의 자랑**으로 볼 수도 있고, **바람이나 소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제 2 장

-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sup>31</sup> 보내며<sup>32</sup>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 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 6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 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 8 또 그들이 늡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31. 이 '가만히'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정탐원들을 몰래 보내는 것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은밀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적용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의미는 통한다. 칠십인 역에서는 은밀성과 첩보 행위를 κατασπερούσαι라는 한 단어로 묶어 말함으로써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사역과 그의 주석을 살펴 볼 경우 그는 전자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32. 칼빈은 "보내며"를 "보냈었으며"(had sent)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제1장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전에 정탐꾼들을 파송했었다는 그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히브리어나 단지 ἀπέστειλεν으로 번역하는 칠십인역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루터의 독일어 번역이 칼빈의 번역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루터는 이것을 "hatte gween funtiyafter feimlich ausgefanbt von Sittim;" 곧 "싯딤에서 두 정탐원들을 은밀히 파송했었다."로 번역한다. 싯딤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판에는 나오지만 칼빈의 라틴어 번역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생략되어 있다. 이 곳은 요단강 왼쪽 독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 위치한 곳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에게 유혹을 받았다가 호되게 벌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민 25장).

-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 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 1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 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 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 23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번에 행해진 정탐의 목적은 이전과 달랐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다른 열한 사람과 함께 가나안 전 지역을 탐사하여 그 땅의 위치, 성격, 비옥함, 도시의 규모와 수, 거주민의 풍속 등을 백성에게 보고하게 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탐의 목적은 백성 중 주저하는 자들을 독려하여 더욱 신속히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따르면 모세가 백성의 요청으로 사람들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했다고 되어 있으나, 민수기 13장 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열두 명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 임무는 가나안의 전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여 백성의 용기를 북돋는 데 있었다.

이와 달리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두 사람을 보냈다.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방심해 있는지 혹은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그의 행동을 **현명한 신중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과도한 염려로 볼 것인가?** 특히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라”고 명하셨다는 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진영을 움직였을 리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정탐꾼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확인 과정이 필요함을 직접 감동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그 성을 이미 함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어디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탐색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기생의 집에 들어가……** 어떤 이들이 ‘기생’이라는 이름을 피하고, **זונה**(조나; 매춘부)를 ‘여관 주인(innkeeper)’이라 해석하려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사자들이 창녀의 집에 묵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 여인이 단지 사자들을 호의로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특별한 용기와 슬기로 그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점에서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유대 랍비들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랍비들은 자기 민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경에 다소 불명예스럽게 보이는 대목이 있을 때마다 임의로 억지 해석을 덧붙이고, 꾸며낸 이야기로 본래의 뜻을 왜곡하곤 했다<sup>33</sup>.

그럼에도 더 합리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정탐꾼들이 비밀리에 행동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공공장소나 왕래가 잦은 곳을 피하려 했을 것이므로, 그들은 성벽 가까운 외진 곳에 살던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합의 집은 성벽과 맞닿아 있었고, 그 바깥쪽은 성벽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곧 그녀의 집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리와는 동떨어진, 한적하고 은밀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런 유형의 여성들은 보통 좁은 골목이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거주하곤 하므로, 그녀의 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공 여관이었을 리는 없다. 만약 여관이었다면 정탐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몸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그들은 몰래 들어가 곧바로 은신처를 찾았다. 게다가, 수치스러운 생업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 은혜는 수치의 자리까지 파고들어, 그 속에서 라합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구원해 내셨다. 분명히 말하건대, 히브리어 단어 (**זונה**, zonah)는 거의 언제나 ‘기생(창녀)’을 의미하며, 여기서 굳이 전통적인 뜻을 버릴 이유는 전혀 없다.

33. 이번 경우(라합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의 억측에는 한계가 없다.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마치 그것이 참된 사실인 양, 라합이 부끄러운 생활을 한 여인이 아니라 단지 여관 주인(innkeeper)이었으며,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아내로 높여졌다고 말한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아마도 의심스러운 낯선 자들을 살피기 위하여 감시인들이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는 위급한 시기나 전쟁의 위협이 임박한 때에 통상 행해지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까이 이르렀고, 에돔과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처를 구하려 한다고 공공연히 알렸다. 그들은 수적으로 강력하였고, 이미 인근의 두 왕을 쳐서 큰 정복을 이루었으며, 곧 보게 되겠지만,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명백한 위협 속에서, 여리고 성 - 곧 국경에 위치한 도시- 에 어떤 낯선 이라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나태성을 보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여러 정황상 적대적 목적을 가진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성문을 지켰더라면, 정탐꾼들은 들어오자마자 쉽게 체포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연히 즉시 수색이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탐꾼들이 피신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리고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적 **혼미**(judicial amazement) 속에서, 모든 일을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행하였다. 그동안 두 정탐꾼은 거의 잡혀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왕은 그들을 체포하려 사람을 보냈고, 그들은 한 여인의 집에 숨어 있었으며, 그들의 생명은 오직 한 여인의 입술, 곧 한마디 말에 달려 있었다 - 마치 생명이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린 듯한 처지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단을 담대히 건너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극도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분은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친히 지켜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섭리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우리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의 도착 소문이 퍼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그들을 숨길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을 것이다<sup>34</sup>. 실제로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숨기

34. 이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다른 자료에서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라합이 취한 은폐의 방식**만으로도 그 시기를 거의 정확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들을 덮은 “아마 줄기(stalks of flax)”는 분명히 아마가 충분히 자라 성숙한 후 뽑아낸 것으로, 그 섬유질을 제거하기 위한 ‘**겹질 벗김(skutching)**’ 과정을 거치기 전에, 관습대로 **들판에 널어 말리던 상태**였다. 아마는 보통 9월 말경에 씨를 뿌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수확한다. 따라서 바로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옮기기 시작한 때였음을 알 수 있다.



려 했다면,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부인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녀가 침착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용기를 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미리 손님들을 숨겨 놓았고, 이제 수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대담하게 나서서 교묘한 대답으로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반한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둘째, 그녀의 거짓말이 결백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우리는 조국에 대한 사랑, 즉 마치 공동의 어머니와도 같은 조국에 대한 본능적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심겨 있음을 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멸망당할 운명임을 알면서도, 정탐꾼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었다. 이는 극히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처럼 보인다. “아직 적이 아니므로 괜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도시의 주민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공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합이 그녀의 행위에 결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특별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녀는 일반적인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두 사도에 의해 칭찬된다.(히브리서 11:31, 야고보서 2:25) 즉, 그녀가 정탐꾼을 도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주께서 외국 여성을 자기 백성에게로 옮기시고, 교회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하셨을 때, 그녀를 불경하고 저주받은 민족으로부터 분리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녀가 그 날까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지만, 교회의 몸에 입양될 때, 그녀의 새로운 신분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속박되는 일반 법으로부터의 일종의 해방이었다. 요컨대, 믿음으로 새 백성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이 일에서 그녀가 단지 하나님의 판단에 순응했을 뿐이므로, 그들을 버리는 데 어떤 범죄성도 없었다<sup>35</sup>.

거짓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결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른바 의로운 거짓말<sup>36</sup>을 전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

35. 라틴어 원문은 “Nullum in proditiōne fuit crimen”으로, 문자 그대로는 “그 배신 행위에는 죄가 없었다”라는 뜻이다. 프랑스어 번역은 “Il n’y a point eu de crime de trahison en ce fait”로, “그 일에 배신의 죄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두 표현 모두 칼빈이 의도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그의 다음 설명을 보면, 칼빈은 모든 배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진리에서의 일탈이기 때문에 죄된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라합이 자기 민족에 대한 충성에서 물러나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돌린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인정한다. 따라서 칼빈은 그 행위 자체(즉, 정탐꾼을 숨기고 이스라엘을 도운 것)는 옳았다고 보지만, 그 행위의 방식(즉, 거짓말과 기만의 수단)은 옳다고 보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배신”이라는 말보다는 “충성을 버리고 떠남(abandoning)”이라는 표현으로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36. 라틴어, “Mendacium officiosum” 프랑스어 “Le mensonge qui tend au profit du prochain”, “우리의 이웃의 유익에 보탬이 되는 거짓말”, 이는 꾀변가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표현으로서 “직무상의 행동으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쉬운 예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사람의 이익이나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살인자들이 자기 아들을 뒤쫓고 있다 하자. 이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는 살인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아들을 감추는데 성공했다 하자. 그녀는 이 경우 그 사람들의 질문에 거짓대답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난해한 질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어떠한 거짓이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 하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는 말로써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올바른 결정이다. 이 결정에 대한 예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든 도덕심의 방향을 뒤집어 놓는, 특히 예수회파와 기타 로마 가톨릭 파괴 행위를 쉽게 그 예로 들 수 있다.

님 보시기에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형제를 돕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은 옳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행위가 순전히 결점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덕의 칭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따르려 노력할 때, 종종 우회적인 경로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8장에서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도록 한 일에서, 그녀는 예언을 따랐다. 이러한 순종에서 경건하고 칭찬할 만한 열심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가 야곱을 에서 대신에 세움으로써 의무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 교활한 행위는 본래 칭찬받을 만한 행위에 어느 정도 흠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잘못이 그 행위의 거룩한 열심이라는 공적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잘못은 억제되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합도 사자들이 떠났다고 거짓으로 말할 때 잘못을 범하지만, 주된 행위는 하나님께 합당하였으니, 선과 함께 섞인 악은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들의 생명을 거짓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셨다.

**7절. 그 사람들은…까지 쫓아갔고……** 그들의 지극한 쉽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셨음을 보여 준다. 라합이 그들을 속여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안의 과정이 이어진다. 성문이 닫히고 도시가 감옥과 같이 되어 탈출의 희망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중대한 시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촉발되었다. 이 역사가 그들의 보고를 통해 기록되었음을 볼 때, 그들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그들을 연속된 위험에 노출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깨어 있었음으로 보아,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출구가 봉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과 긴장은 상당히 커졌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라합은 전혀 겁먹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차분하게 협상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착함과 단호함 속에서, 다른 곳에서도 칭찬받는 그녀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녀가 왕과 백성의 분노를 감히 무릅쓰고, 반쯤 공포에 질린 손님들에게 간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와 히브리서 저자가 그녀에게 내린 찬사(약 2:25, 히 11:31)를 보고, 그녀를 믿음 있는 자들의 목록에 올린 것이 어딘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활발하고 생생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나무가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의 결과가 아닌, 믿음의 여러 증거들을 볼 수 있다.

둘째, 그녀가 주변 나라들이 이미 사실상 굴복하고 무릎 꿇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경건한 원칙(piety)의 영향이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내진 공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물론 세속 작가들에게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작가들이 앵무새처럼 아무렇게나 떠들어 대는 것과 달리, 라합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하셨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모든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겁에 질려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고백에서 라합은 인간의 마음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통치권을 인정하는데, 이는 세상의 교만이 부정하는 권세이다.

비록 모든 시대의 경험이 보여 주듯, 더 많은 군대가 적의 힘과 무용보다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공포에 의해 무너지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은 곧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정복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용맹을 치켜세우고, 성과가 있을 때는 오직 자신의 노력과 전쟁 재능을 자랑해 왔다. 그들이 때때로 대담함과 용기가 외부 요인에 의해 주어지거나 제한된다는 것은 인정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운이 크게 작용하거나 심지어 지배한다고 고백하며, 공포와 관련하여 속담을 만들고, 공포의 신(Pavor)와 안정의 신 주피터 스타토르(Jupiter Stator)에게 제물을 바쳤다.<sup>37</sup>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재의 용기를 부여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겁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담함을 억제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반면 라합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들이 마치 미리 자신의 멸망을 선언하는 듯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려일으킨 공포가 승리의 전조임을 추론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아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37. 프랑스어, "Etya eu un proverbe commun entre eux, pour signifier les frayeurs soudaines dont le cause n'apparoit point; (car ils les appelyent Epouvantemens paniques; ) aussi ils faisoient voeus a un Juppiter qu'ils appelloient Stator, c'est a dire Arrestant; et a une deesse qu'ils nommoient Pavor, c'est à dire peur afin que les armees tinssent bon, et nesen fuissent de peur;"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갑작스런 공포를 나타내는 속담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공황의 공포(Panic Terrors)"라고 불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군대가 잘 서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테이터(Stator, 머무름)'라고 부르는 주피터에게 맹세를 하였고, 또한 '파보르(Pavor, 두려움)'라고 부르는 여신에게 맹세를 하였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이렇게 녹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적인 완강함으로 저항을 준비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악인이 깨지고 부서질 때, 그들이 완전히 복종하여 명을 받기보다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길들여지지 못함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공포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겸손하고 평온하게 복종함으로 악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결론 내린다. 저항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불쌍한 주민들은 어떤가? 그들은 공포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은 굴복하지 않고 서로를 부추기며 싸움에 나선다.

**10절. 이는 …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녀는 특히 공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금까지 전례 없는 기적들이 널리 퍼진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진 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물이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켜 단단한 더미로 썩이지 않았다면, 자연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이 요소의 변형은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 편에 계시며, 그들에게 바닷속을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옥과 바산에서 거둔 눈에 띄는 승리들은 정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여겨졌다. 후자의 결론은 단지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홍해의 통과는 확실하고 논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확신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원정에서 하나님이 주된 지도자라는 확신<sup>38</sup>으로 사로잡혔고, 그리하여 그들의 공포와 혼비백산이 발생했다.

동시에,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헛된 상상에 속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인들이 각 신이 특정 민족을 보호하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인다고 꾸며내며, 신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최고 권능과 영원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곧 여호와와의 진정한 속성이다. 그녀는 일반적인 생각처럼, 신들의 무리 중 한 존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며, 그분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

38. 프랑스어, “Qui Dieu estoit le principal conducteur de l'entreprise du peuple d'Israel et qu'il marchoit avec icelu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업을 주도하시는 주된 인도자이셨으며, 그들과 함께 행진하고 계셨다는 것.”

이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정보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 민족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통찰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라합의 믿음의 형상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녀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며 하늘과 땅의 통치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귀속시킨다. 이는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선언될 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여러 신들 사이에 나누어 분배하는 모든 이교적 허구를 거부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두 사도께서 라합의 행위를 믿음이라는 칭호로 존중한 것은 결코 이 유 없는 일이 아니다.

일부 교만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이를 비웃지만, 나는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모든 허구의 신들과 구별하고, 동시에 그의 권능을 찬양하며 온 세상이 그의 뜻대로 다스려진다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기를 바란다. 라합은 주저하며 말하지 않고, 절대적인 언어로 존재하는 모든 권능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으며, 그가 모든 요소를 지배하고, 위와 아래의 모든 것을 명령하며, 인간사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아직 그녀의 영원한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 경건의 싹에 불과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더라도, 자신을 그의 권능에 맡김으로써 그녀의 선택됨을 증명하며, 그 씨앗에서 나중에 완전한 성장에 이르는 믿음이 발아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 또한 그녀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확실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녀가 이 결론에 도달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라합은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토를 침범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방종을 일삼는 침략자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의 통치를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이 에돔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길을 물을 때 어디로 가려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은 에서가 배제됨으로써 다시 상기되었던 기억이었다.

더 나아가, 라합의 말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묘사한 특징을 볼 수 있다(히 11:1). 라합은 자



신의 백성과 함께 요새화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겁에 질린 손님들(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맡긴다. 마치 그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고, 원하는 대로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는 전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 자발적인 항복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는 것과 동일하다. 게다가 그녀는 서약을 요구하는데, 이는 종종 성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혼란과 격렬함 때문에 의무의 기억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자신이 베푼 친절을 언급하는데, 이는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도록 더욱 자극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약의 의무 자체가 충분히 효과적이었어야 하지만, 구출을 받은 손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중으로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친족에 대한 염려에서 그녀의 온화한 성품을 보여 준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녀가 자신의 목숨을 부모의 희생으로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용기와 열의를 발휘해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4절.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그들은 라합을 충실히 구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죽음을 청하는 셈이다. 일부 해석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맹세하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거나 제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들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묶겠다(bind themselves before God)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라합에게 어떤 해가 그들의 태만으로 인해 닥치면, 그들은 일종의 속죄적 희생물이 되는 셈이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의심할 여지없이 라합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라합의 가족이 안전하지 않다면, 자신의 생명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로 자신을 묶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서약의 신성함이 나타난다. 비록 그 위반이 사람에게서는 면죄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배신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히브리어에서 “자비와 진리를 행하다”라는 말은 곧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고 진지하며 확고하게 수행하는 것과 동등하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첨가되었는데, 라합이 그들이 말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경우이다. 이는 흔히 해석되는 바와 달리 불신 때문이 아니라, 라합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경고는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순수한 호의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라합이 자신을 폭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이 은밀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여성이 경솔하게 약속 내용을 말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라합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도



집을 떠나지 말라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 외의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한 점에서, 서약을 할 때 신중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으며, 헛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라합이 산으로 피신하여 사흘간 조용히 있으라고 조언한 것은, 믿음과 명백한 위험에 대한 예방책 사이에는 모순이 없음을 보여 준다. 사신들이 큰 두려움 속에서 산으로 숨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간섭을 하셨다는 신뢰가 그들의 발걸음을 안내했으며, 마음을 잃지 않게 했다.

일부 사람들은 질문을 제기했다. 성벽을 넘는 것이 범죄라면, 창문을 통해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가? 그러나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의 성벽이 어디서나 신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모든 도시가 로물루스 같은 존재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sup>39</sup>, 성벽을 넘는 것이 형제를 살해할 구실이 되지는 않았다. 둘째, 키케로가 상기시키듯이, 법은 형평성에 따라 완화되어야 한다. 즉, 적을 막기 위해 성벽을 넘는 사람은 처벌보다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의 목적은 시민이 성벽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솔, 분노, 사기, 난폭함 없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성벽을 넘는 자는, 이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 만약 그것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반론이 제기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생명을 해치거나 폭력, 강도에서 구하려는 목적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한 경우 필연성이 이를 정당화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생명이 위협할 때, 바구니에 매달려 내려간 것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것과 같다<sup>40</sup>.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들의 폭력과 잔인함에서 혼란 없이 구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정하는 데 있어 잘못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언사는 그들이 올곧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로서 드문 정직성을 가진 자들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한때 겪었던 공포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면, 온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되새기며,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담대히 전진할 것을 권면한다.

39. 이는 칼빈의 다른 저작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조용하며 다소 교묘한 유머**의 한 사례로서, 그의 일반적인 엄숙함과 어울렸다면, **신앙의 싸움에서 사용한 여러 수단에 기지를 더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사적인 생활에서, 보다 자유가 허용될 때에는, 베자의 언급에 따르면 이러한 유머가 그의 **대화**에 **매력을 더하는 데 종종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40. 성벽을 넘어간 행위에 관한 반론 전체는 그 자체로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당시 모든 당사자의 상황에 거의 적용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칼빈이 왜 이를 굳이 다루고, 적어도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추측해 본다면, 제네바 성벽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렇지 않았다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논의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단순히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만으로도 충분했어야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극히 너그럽이 돌보셔서, 모든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경험으로 확인시키신다. 주께서 헛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은, 이미 열방이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하고, 마치 말벌을 보내듯 몰아내심으로써 입증된다. 그들은 라합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땅이 주어진 것은 거주민들이 두려움으로 거의 기절할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이에 나는 논리적 연결사 ‘for’를 사용하였으나, 문자적 의미는 ‘그리고 또한(and also)’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들이 말한 바가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었음을 충분히 드러낸다. 그리고 사실 그 민족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길로 일망타진된 것처럼 모두들 간담이 녹아 있었다.



## 제 3 장

- 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 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케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케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 8 너는 언약케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
-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케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 13 온 땅의 주 여호와와 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 날까지는 진을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뒤, 그는 장관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릇을 거두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삼일 후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임을 알렸다. 그러므로 그가 아침에 일어났다는 표현은 단순히 정탐꾼들

의 귀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포고가 선포된 시점을 의미한다.<sup>41</sup> 3일이 지나자, 장관들은 다시 진영을 돌며 백성들에게 통과 방법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 줄 것인지가 공적으로 알려지기 전, 강가에 모인 무리들은 어느 정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물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여울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때 물은 범람하여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과를 막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여성과 어린이, 짐과 동물들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겉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은,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실한 순종의 본보기가 된다. 이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반항하며 주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현저히 다른 태도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성령의 특별한 사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41. 요단강에 관한 간략한 기록,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진을 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는 칼뱅이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했기 때문에 필요하며, 그가 지리적 세부 사항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거의 두지 않았다는 그의 주석에 담긴 일부 표현에서 부분적으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가 겸손하게 표현했듯이 지리에 대해 아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로 그가 저술하던 시기에는 성지의 지리가 매우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수많은 자격을 갖춘 여행자들이 성지 전역을 다니며 그 일반적인 특징과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주의 깊은 설명을 출판했기 때문이다. 단 한 개의 주석에 몇 가지 주요 요점만 언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건너려 했던 나루터의 특성과 그들이 건널 수 있게 한 놀라운 신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 <요단강의 지리와 특성>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강으로서, 북부 국경 근처에서 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오는 여러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다. 이 강은 거의 정남향으로 약 175마일(직선 거리)을 흐른 후, 그 물을 사해(死海)의 북쪽으로 흘러간다.

**상류 지역 및 지형의 깊이:** 이 강은 성경에서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티베리아스 호수**에 도달하기 전 상류에서는 급류의 특성을 많이 띠며, 양쪽으로 솟아오른 산들에 의해 좁게 갇혀 있다. 그러나 이 호수의 남쪽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강은 계곡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계곡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은 그 수면이 해수면보다 **훨씬 깊다**는 점이다. 갈릴리 바다조차도 해수면보다 **84피트** 아래에 있으며, 요단강이 흘러드는 사해는 이 수면보다 **1337피트** 아래에 위치한다.

**요단강 계곡:** 두 바다 사이의 이 간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강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한다. 이 계곡은 북쪽에서는 폭이 약 **6마일**이지만, 남쪽 절반에서는 훨씬 넓어지며, 동쪽(왼쪽) 강둑으로는 **모압 평야**로, 서쪽(오른쪽) 강둑으로는 **여리고 평야**로 펼쳐진다. 이 계곡은 전체 길이에 걸쳐 양쪽으로 **산맥**에 의해 경계를 이루며, 이 산맥은 많은 부분에서 급격히 솟아올라 **25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이른다.

**강의 수로와 길이:** 이러한 경계 내에 더 작은 계곡이 에워싸여 있다. 이 작은 계곡은 폭이 약 **4분의 3마일**이며, 대부분 모래 경사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무나 관목으로 덮인 낮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지의 거의 중앙에서, 강은 둑 아래에 거의 감춰진 채 흐르고 있으며, 큰 굽이 없이 수많은 미세한 굴곡을 따라 흐른다. 이 때문에 직선 거리는 **65마일**이 넘지 않더라도, 간접 거리 즉 물줄기의 총 길이는 **200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강폭과 깊이:** 강은 평소 상태에서 둑 안에 있을 때 폭이 **20에서 30야드**이고, 깊이는 **9에서 15피트** 사이로 다양하다. 둑의 높이는 **12에서 14피트**이며, 둑 바로 너머의 평지는 빈번하게 범람했다는 명백한 흔적을 보여준다.

#### <요단강의 범람 시기>

**범람의 원인 및 시기:** 이러한 범람은 봄에 일어나며, 요단강의 세 주요 지류인 **야르묵(Jarmuch)** 또는 **슈라트-엘-만두르(Shurat-el-Mandour)**, **압복(Jabbok)** 또는 **제르카(Zerka)**, 아르논(Arnon) 또는 와디 모젯(Wady Modjet)이 모두 동쪽에서 합류하여 가져오는 녹은 눈과, 주로 **레바논의 눈 덮인 고지**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 본류에 의해 발생한다. 물의 수위 상승은 해빙에 영향을 주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시작되지만, 그 영향이 완전히 미칠 때까지, 즉 **4월 첫째 주**까지는 최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준비를 하던 시점의 강 상태는 이와 같았을 것으로 안전하게 추정되며, 그 위치는 사해에서 **7마일**에서 **12마일** 북쪽,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그의 선구자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를 겸손히 허락하신 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을 때 강둑에서 올라가신 **베다바라**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2절. 사흘 후에 ……** 그것은 곧 그들의 출발이 예고된 지 사흘 후의 일이었다. 그들이 강둑에서 밤을 샌 것은 하룻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너기로 정해진 기간이 사흘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라고 권고한다**.

비록 기적의 형태가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언약궤**가 길을 인도하는 깃발처럼 앞장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무언가 **비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추론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감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심각한 시련을 통해 다시 시험 받는다. 그들이 결과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실로 희귀한 미덕의 본보기였기 때문이다.<sup>42</sup>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 젊은 레위인들, 즉 궤를 운반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민수기 4:15)은 궤를 만지거나 덮개가 벗겨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궤에 상당한 거리 이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과 궤 사이에 **넓은 간격을 두어 경외심을 나타내도록 명령받음으로써** 궤의 위엄이 선포된다.

또한 우리는 웃사(사무엘하 6장)가 **말을 제어하지 못한 소들이 궤를 흔들자**, 생각 없는 열정으로 손을 내밀어 궤를 받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초대하시지만, **충실한 신뢰는 결코 안전과 담대함을 낳지 않으며**, 오히려 항상 두려움과 함께 수반된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강력하고 기쁜 표징이었지만, 동시에 육신의 교만을 누르기에 알맞은 두려운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겸손과 절제는 또한 신앙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지나치게 좁은 범위 안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어떤 비범한 능력의 표징이 반드시 드러나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머뭇거림에서 오는 지체로 인해 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하도록 하

---

42. 참된 믿음의 특성

- 1)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호기심을 가지고 묻지 않는 것**.
- 2)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미묘하게 논쟁하지 않는 것**.
- 3)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것.
- 4)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함**을 아는 것.
- 5) 우리의 생각을 세상 위로 높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직 그 기적의 구체적인 성격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같은 문맥 속에서 읽는다면 그가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믿음의 진정한 시험이 드러난다. 곧, 하나님의 뜻에 기대되,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 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나치게 탐구하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어 단어 “קָדַשׁ”(qādash, 칼빈이 라틴 문자로 sdq라 표기함)는 ‘준비하다’(prepare)라는 뜻으로도, ‘거룩하게 하다’(sanctify)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두 의미 모두 적절하므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준비를 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이 자신을 나타내시던 시대에는 그분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엄숙한 의식을 통해 자신을 성결케 하였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할 때 백성을 성결하게 하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백성이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가 단지 요단을 건너는 일을 방해할 만한 어떤 장애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만, 이는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앞서 가게 하신 뜻을 제사장들에게 미리 알리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그들이 그 명령을 보다 기꺼이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곧 백성 전체에게도 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다. 이미 진중에서 관리들이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을 공포했으므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리는 없었다. 그들은 분명히 인도자이자 기수(旗手)를 잡는 자들, 즉 행렬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점을 이미 통보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보다 평민들에게 먼저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백성에게도 그 기적이 알려졌다고 덧붙여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제사장들도 한동안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상태로 머물렀다가, 주께서 그들의 전적인 순종을 확인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행하실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셨다는 것이다.

먼저, 본문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라”고 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혹시 누군가 여호수아가 아무 근거 없이 무모하게 이런 일을 시도한다고 생각할까 염려하여,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확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언급한다.



비록 이때에는 요단강의 흐름이 끊길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자신의 계획을 밝히셨음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임의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로 그는 이 일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하려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함을 미리 밝히고 있다.

**10절. ...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이 기적의 능력이 단순히 땅의 입구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된다고 말한다. 이는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적대적인 영토로 들어가는 길만 열어 주시고, 그 뒤로는 물러설 길을 남겨 두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사실상 죽음에 내맡긴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좁은 지형 속에서 길을 잃고 쉽게 전멸했을 수도 있고, 혹은 굶주림과 모든 보급의 결핍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미리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강을 본래의 흐름으로 되돌리실 때, 그것은 곧 그분이 손을 펴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쫓아내시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다시 말해,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든 민족을 제압하게 될 승리의 확실한 전조(前兆)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리라” 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민족들을 무찌른다는 언급 속에는 이미 자유롭고 평안한 최종적인 소유가 암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요단을 가르심으로써 자기의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셨을 때, 백성 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원수들이 이미 패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을 눈앞에 본 것과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손으로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버리시지 않는다. (시편 138:8) 그분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기업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의 흐름을 끊어 마른 길을 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한순간의 기적에서 멈추고, 그 이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었겠는가!

이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 곧, 하나님의 여러 선행(善行)을 우리의 궁극적 구원과 지혜롭게 결합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시작이 장차 완성될 구원의 희망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기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리라”고 말할 때, 그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확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믿음은 본래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에만 기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지식이 연약한 믿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행위로써 인치시며,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그가 하신 말씀의 확증과 우리의 의심을 억누르기 위한 도움으로 사용하신다.

**11절. 보라 ..... 주의 언약궤가 .....**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 목적을 설명한다. 곧, 요단강이 주의 임재 앞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 114편의 말씀처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도다”라는 시적 표현을 연상시킨다.

이때 열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삽입적인(부가적인) 설명으로,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내용을 잠시 암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단지 이 사실만 이해하면 된다. - 곧, 언약궤가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궤를 통하여 백성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이로써 율법에 따라 정해진 예배의 거룩함이 확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단지 상징적인 장식물이나 빈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를 두신 표징임을 보았다. 요단강은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본 듯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여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이유는,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궤는 하나님의 언약(말씀)을 담고 있었기에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마음을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묵상으로 이끈다.

이때 하나님께 붙여진 “온 땅의 주(主)”라는 칭호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만물의 모든 요소 위에 군림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와 강 같은 물질적인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이 비록 본성상 흐르는 성질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굳게 멈출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 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 17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5절. 궤를 멘 자들이……** 제사장들이 과감히 강바닥을 넘어 물속으로 들어간 용맹함은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시 의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발을 들이는 순간, 깊은 웅덩이에 빠져 모두 휩쓸릴 것이라는 예상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감으로써, 신뢰에 기반한 드문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위험 외에도 특수한 위험이 있었다. 요단강은 여름 초기에 항상 범람하곤 했기 때문이다. 평야가 물에 덮여 강둑이나 여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진흙이 넓게 펼쳐져 있어 두려움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sup>43</sup> 하나님은 백성, 특히 제사장들이 이러한 장애물과 맞서 싸우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견고함이 더욱 빛나도록 하셨다.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은 기적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범람했던 강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러나 한곳에 쌓여 마른 언덕처럼 되었다는 사실은, 그저 자연적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 기적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의심을 제거하고,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인하려는 불경한 자들을 방지하였다.

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일부 구간이 마른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이 한 곳에 모여 쌓이는 장면은 결코 자연적이거나

43. 여기서 이루어지는 논평은, 물이 단순히 강둑의 최고 지점까지 차 올라 통상적인 수로가 가득 찬 상태를 넘어, **평야 위로도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명확히 서술한 구절은 없다. 또한 15절의 마지막 문장은 칼빈과 우리 영어 번역자들이 해석한 의미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담고 있지 않는다**. 칼빈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Jordanes autem erat plenus ultra omnes suas ripas”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제 요단은 모든 강둑을 넘어 가득 차 있었다” 정도가 된다. 그러나 원문은 단지 “요단이 모든 강둑까지 채워졌다(완전히 찼다)”고만 말할 뿐이다. 칠십인역(Septuagint)도 유사하게 기록한다. “Ο δὲ Ἰορδάνης ἐπλήρωτο κατὰ πᾶσαν τὴν κρηπίδα αὐτοῦ.” “이제 요단은 모든 둑에 걸쳐 채워졌다.” 루터(Luther) 성경도 매우 정확히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Der Jordan aber war voll an allen feinen ufern” “이제 요단은 모든 둑까지 차 있었다.” 번역상의 차이는 미세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차이조차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성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역사자가 기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범람의 규모를 과장했다**는 식으로 암시되기도 하였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흘러 내려 연속적인 배출구를 찾던 강물이 멈춰 서서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이 깨닫게 되었다. 쌓인 물더미는 사실상, 만약 강물이 본래대로 흐르기만 했다면<sup>44</sup> 백성 전체가 묻혔을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그들이 물 위를 걸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일종의 다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머리 위로 거대한 물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찾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장소가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도록 표시된 것도<sup>45</sup>, 그 기억이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돌을 세워 영구적인 기념물로 삼게 하셨는데, 이는 이 특별한 은혜가 후세에도 세대를 거쳐 기념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44. 프랑스어, “Si les eaux, selen leur natur, eussent alors recommencé a couler,”; 만약에 물이 본래의 성질에 따라 다시 흐르기 시작했더라면”

45. 이 구절은 매우 명확하지 않으며, 원문 자체가 지금의 형태로도 애매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번역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동을 더 늘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불가타 성경(Vulgate)에서는 “Adam”을 “Edom”으로 바꾸어 번역했고, 칠십인역(Septuagint)에서는 “Kirjath-jearim 지역”(μέρους Καριαθιάρ(μ))으로 처리하였다. 성경에는 같은 지파, 즉 므낫세 지파에 속한 두 도시, 아담과 사르단(또는 Zareth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로 가까운 마을이 언급되어 있다. 한 도시는 요단강의 오른쪽, 다른 도시는 왼쪽 강변에 위치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추정되는 장소보다 이들 도시가 떨어진 거리는 약 40마일(약 64km) 정도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강물이 마치 한곳에 얼어붙은 듯 쌓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물이 오래 정체되면서 일종의 역류가 발생했다는 것. 이 역류 현상은 한쪽으로는 아담, 다른 한쪽으로는 사르단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 제 4 장

-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케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케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절. 모든 백성이 ... 마치매...** 그가 이전에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언급하였던 열두 사람에 관한 암시는 이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자 자기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중단함으로써 그 선택의 목적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여호수아의 명령<sup>46</sup>에 따라 그들이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다고 말한다. 이는 후세에 명확한 기념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그는 백성이 강을 건넌 후에 행해진 일을 언급하므로, 그 사이에 삽입된 문장은 대과거 완료시제(pluperfect)<sup>47</sup>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접속사(copula)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rational particle) 대신 사용된 것 역시 명백하다<sup>48</sup>. 그 요지는 이렇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46. 프랑스어 역본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Le commandement de Dieu”,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잘못 인쇄한 것임에 틀림없다.

47. 프랑스어, “Par un temps passe plus parfait(comme parlent les Latins;)”, “라틴어식 완료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48. 프랑스어, “Et quant a ce mot Et, on peut aisement juger qu’il se prend pour Car;”, ‘그리고’(and) 라는 말은 ‘……때문에(for)’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강 한가운데서 발을 옮기기 전에, 그들의 발 아래 있던 돌들이 취해져 길가에 세워졌고, 그것들은 기적의 영속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가 미리 선택해 두었던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이로써 그의 권위가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러한 표징을 세웠다면, 그 경건한 동기는 칭찬받을 만하였을지라도,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훈계로 여겨져 경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표징을 세우셨으므로, 그것을 소홀히 지나치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가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념비가 가장 세심한 주의와 경건으로 기념될 만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돌 그 자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념물은 부모들에게 말할 자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리게 했다. 여기서 노인들에게 경건을 전파하려는 열심이 요구되며<sup>49</sup>, 그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명령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이 모든 세대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나중에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돌들은 지파의 수대로 배치되어, 각 지파가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사실, 요단강을 넘어 상속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따로 보면 그 통과를 기념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손 전체의 공익을 위해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졌듯,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이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했다.

비록 처음에는 열두 사람만 언급되었으나, 짧은 문구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 돌을 나를 대리인을 선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9절. 여호수아가…… 열 돌을 세웠더니……** 요단 강물 아래에는 돌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돌들을 깊은 물속에 묻는 일이 다소 부조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길가에 세워진 다른 돌들은 공개적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것들이 사람들의 질문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물 밑 깊숙이 감추어진 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처럼 보인다.

49. 프랑스어, “Or ce passage est pour monstrier, que les gens anciens doiventtre affectionnez a la piete;”, “노인들은 마땅히 신앙에 집중해야 하고”.



나는 침묵 가운데 완전히 묻혀 있는 기념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sup>50</sup>.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진 건넌 흔적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할 때, 비록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언약궤 또한 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그것을 덮은 휘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 감추어진 영광이 무익한 것은 아니었다. 율법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돌무더기의 윗부분이 때때로 수면 위로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가 더 개연성이 있다. 곧 여호수아가 그 돌들을 강 한가운데 묻은 행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표징을 세운 것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후대에 이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도록 하기 위한 유익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10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 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0절. 궤를 멘 제사장들이 ……**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서두르는 동안 멈추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듯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짜증나는 기분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온 국민이 빠르게 건너편으로 향하는 동안 홀로 자신의 위치에 차분히 머물러 있는 인내심으로 정당하게 칭찬받는다. 그들은 머리 위에 떠 있는 물더미가 갑자기 녹아 자신들을 덮쳐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은 흐르는 물 속으로 감히 나아간 것만큼이나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경건함을 나타냈다.

50. 프랑스어, “Or je confesse bien que c'eust este un tesmoignage du tout inutile, si on l'eust laisse la comme enseveli sans en parler;”, “지금 나는 고백하건대, 만약 그들이 그것을 마치 묻어둔 채 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로는 그들의 신속한 복종, 둘째로는 그들의 지속성을 드러내어, 그들이 단순한 충동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칭찬받는 그들의 굳은 결심은 살아 있는 원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성급한 행동을 시도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따르듯 전체 절차를 조절한 것이 겸손함의 증거였다.

비록 여호수아가 필요한 일을 위해 새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랐다고 전해진다. 나는 이것을,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세심하게 당부했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관찰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요컨대, 여기 언급된 모세의 명령은 일반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12절. 르우벤 자손과.....** 그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원정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자기들의 유산을 얻는 데 용맹으로 기여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 의무를 부과했으며, 그들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정착할 때까지 나머지 백성과 동행하겠다고 맹세로 자신을 묶어 두었다.

그들은 진영을 이동하려 할 때 다시 같은 약속을 했다. 이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 서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발된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 수가 사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즉 이전에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 산출된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제 그들이 어디에서나 약속을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아, 모세가 엄격히 모든 동의자가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군사 복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확실히,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다수를 여러 적국 한가운데 두고 방치하는 것은 가혹하고 잔인했을 것이다. 적의 잔존 세력과 인근 국가들의 도움을 받은 적들은, 그러한 기회를 틈타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며 복수할 기회를 오래지 않아 잡았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충분히 평정되지 않은 땅에서는,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모세는 무력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냉정한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신중함과 공정함은 최근 무력으로 점령한 땅을 군대 없이 방치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거대한 인원이 모이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돕기보다 오히려 방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모세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형제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나태하게 집에 머물며 음식만 즐기지 않고, 유산을 얻게 해 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4만 명의 성실함은, 나머지 지파들이 평화를 누리는 동안에도 그들이 전쟁의 부담과 고난, 위험을 피하지 않고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만큼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쉽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징집이 이루어진 후 명령에 순종하며, 형제들에게 주어진 면제에 부러워하지 않고 신속히 행동한 것은 그들이 자발적이고 진심으로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각 지파의 가장 건강한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불평과 다툼의 여지가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나이 많고 쇠약한 사람들, 또는 어린이와 허약한 사람들조차도 면제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가 선택이 아니라 추첨으로 모집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나, 내 생각에는 피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모두 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하시매...** 물론, 이 기적의 주된 목적이 여호수아의 권능과 권위가 뛰어남을 선포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과 크게 관련되어, 여호수아의 통치가 굳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성한 표징으로 장식되어 백성의 눈에 존엄하게 보이도록 하심은, 그를 멸시하려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한 예로 정당하게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는 무분별한 무리는 스스로 흩어지고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그의 소명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징으로 구별하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뛰어난 역사를 나타내시는 모든 자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추천하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백성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하듯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할 때, 만약 누군가가 백성이 그에게 일으킨 수많은 반역과 폭동, 그것도 무모하고 격렬하게 일어난 것으로 이 진술을 반박하려 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굴복하고 온유해진 시기에 모세에게 적절히 순종하기 시작한 때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술된 것은 평온한 통치를 나타내며, 마치 그들이 옛날의 불순함을 내려놓은 듯한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난폭했던 부모들이 죽고, 더 나은 세대가 뒤를 이은 때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을 읽지 못한다. 나는 이제 이미 설명한 바를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들에게 순종을 권고했을 때, 백성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순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6절.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온순하고 침착하게, 신의 명령에 대해 암묵적으로 순종하였는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후퇴 신호를 내리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한 것은 드문 덕행의 사례였던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군에 있어 거의 모든 단계를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지시하고 인도하심으로써, 어떠한 혼란도 그들을 지체시키지 않도록 하셨다. 다음으로, 기적이 더욱 뚜렷하게 확증된다. 그들이 반대편 강둑에 오르자마자, 요단강은 평소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거나, 갑작스럽게 변화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숨겨진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미세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실 때 모든 의혹은 제거된다.

제사장들의 발이 젖자마자 요단강은 물러났고, 그들이 강둑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부분은 범람으로 덮이지 않은 구간을 의미한다<sup>51</sup>. 이와 같이, 강은 말은 없지만<sup>52</sup>, 최고의 전령으로서 천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함을 큰 소리로 선포하였다.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치매

20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9절. 백성이 …… 올라와 ……**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진을 친 날이 표시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갈’이라는 이름은 예측적으로 붙여진 것이니, 이

51. 칼빈은 여전히, 강둑 바로 너머의 평지가 범람했었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제사장들이 가파른 강둑을 오른 뒤에도 얕은 물 위를 한동안 계속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둑만 물이 차 있었고 범람하지는 않았다는 견해는,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원문과 더 부합할 뿐 아니라, 여기 사용된 표현에서도 추가적인 확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밟는 순간 물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파른 강둑을 오르는 동안에는 발을 단단히 딛지 못했으므로 물이 쌓여 있었지만, 평지에 도달하여 발을 확실히 디딘 즉시 물더미는 곧 해소되었다는 뜻이다.

52. 라틴어, “mutus”. 프랑스어 “une creature insensible et sans voix;”, “목소리 없는 무생물”.



새 이름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새로이 행할 때 붙여졌으며, 그 어원은 적절한 곳에서 설명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열두 돌로 된 기념비이다. 비록 이전에 언급되었지만, 이제 일종의 엄숙한 헌정식이 기록되는데, 즉 여호수아가 단순히 돌무더기를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돌들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용도를 사람들에게 주목시키도록 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이들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돌들이 관람객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돌들이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쌓여 있었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위치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언약이 끊임없이 천 세대에 걸쳐 견고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몸의 연합성 때문에, 훨씬 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공동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후손들에게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들에게도 속함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의 주의를 더욱 강하게 환기시켰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에만 국한되었다면, 부모의 답변은 차갑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손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요단강의 물이 마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그 놀라운 신의 은총의 행위가 자신들에게도 향해졌음을 인정하게 된다. 홍해가 마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하며, 비록 그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지만, 그는 모든 백성에게 마치 그들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즉, 이는 조상에서 자손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택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홍해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단지 기적의 유사성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요단강 사건을 들을 때 그 이전의 기적도 동시에 새롭게 되살아나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징은 없었지만 말이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단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형상이 여러 민족 가운데까지 퍼져 나가도록 하신 것임을 언급한다. 비록 그가 자신의 찬양이 시온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그의 행하신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이 스스로 멸시했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고백하게 하고, 마지못해 그를 경외하도록 강제되게 하는 것도 기뻐하셨다. 이는 모세의 노래(신명기 32:31)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자라”고 한 말씀과 같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고백을 강제로 받아내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특별한 지식을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긴다.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였으나, “너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어둠으로 빛을 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을 생각함으로써 그의 경외 안에서 나아가야 함을 배워야 한다. 그는 ‘영원토록’(all days)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여기서 말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걸쳐 퍼졌음을 뜻한다.